2019년 8월 둘째주

해외 ICT 표준화 동향

목 차

본문

1. 무선기술 UWB 표준화 단체, 'FiRa 컨소시엄' 설립
2. Khronos Group, OpenXR 1.0 표준 공식 발표
3. DIN, AI(인공지능) 표준화 로드맵 개발 착수

※ 게시물 보기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 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1. 무선기술 UWB 표준화 단체, 'FiRa 컨소시엄' 설립

Key Industry Players The ASSA ABLOY Group, HID, NXP, Samsung, Bosch, Sony, LitePoint and TTA Establish FiRa Consortium to Drive Seamless User Experiences Using Ultra-Wideband Technology

보도날짜 19. 08. 01.
출 처 FiRa Consortium, 삼성전자
사 이 트 https://www.firaconsortium.org, https://news.samsung.com/kr

◆ 표준과 인증을 통해 칩셋, 디바이스, 서비스 인프라가 상호 호환되는 UWB[1] 생태계를 위해 미국에 본사를 둔 'FiRa 컨소시엄'이 설립됨

- 아사아블로이그룹(ASSA ABLOY Group), HID글로벌, NXP반도체, 삼성전자, 보쉬, 소니, 라이트포인트, TTA가 컨소시엄 설립에 참여하는 최초 회원사로 가입

◆ 'FiRa'라는 명칭은 "Fine Ranging"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리를 측정하거나 상대 위치 결정시 뛰어난 정확도를 제공하는 UWB 기술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음

◆ UWB 기술은 IEEE 802.15.4/4z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FiRa 컨소시엄은 상호 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과, 유즈케이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UWB 기술을 활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음

- 비접촉식 접근 제어(Seamless Access Control) : 인증된 개인이 자격 증명을 제시하지 않고도 보안 출입구 통과
-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s) : 공항, 쇼핑몰, 다층 주차장 등 혼잡한 곳에서 장소 탐색 및 정확한 위치 인식
- 디바이스간 서비스(Device-to-Device/Peer-to-Peer Services) : 두 디바이스 간 정확한 상대 거리 및 방향 제공하여, 붐비는 공간에서 서로의 위치 확인 가능

※ 참고로,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Test Lab Members' (시험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시험연구소 회원은 UWB를 사용한 제품 및 솔루션이 표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함. 검증 후 표준에 부합할 경우, 해당 제품의 회원사는 FiRa 컨소시엄의 인증(certified)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1) UWB 기술 (초광대역 무선, 超廣帶域無線, Ultra-wideband): IEEE 802.11(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에 비해 빠른 속도(500Mpbs/1Gbps)와 저전력 특성이 있다. 평균 10~20m, 최대 100m의 단거리 무선망(WPAN)에서 PC와 주변기기 및 가전 제품들을 초고속 무선 인터페이스로 연결하거나 벽 투시용 레이더, 고정밀도의 위치 측정, 차량 충돌 방지 장치, 신체 내부 물체 탐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정보통신용어사전 발췌)

2. Khronos Group, OpenXR 1.0 표준 공식 발표

Khronos Releases OpenXR 1.0 Specification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the AR and VR Ecosystem

보도날짜 19. 07. 29.
출 처 Khronos group
사 이 트 https://www.khronos.org/news/press/khronos-releases-openxr-1.0-specification-establishing-a-foundation-for-the-ar-and-vr-ecosystem

◆ 2019년 7월 29일, Khronos group은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된 SIGGGRAPH 2019에서 AR/VR 생태계 기반이 될 OpenXR 1.0 표준을 공식 발표함

- OpenXR WG 의장은 "3월 잠정 표준안이 공개된 이후 관련 산업의 관심과 의견을 수용하며 오늘의 큰 이정표를 달성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힘

* XR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및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을 통합하여 XR로 지칭함

◆ OpenXR은 개방형 통합 표준으로서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고성능을 제공함

- 이종 플랫폼에서 VR 및 AR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OpenXR 1.0 표준 발표로 하위 표준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표준을 계속 발전시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하드웨어 벤더들에게 휴대가능하고 놀라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DIN, AI(인공지능) 표준화 로드맵 개발 착수

Setting the course for the AI Roadmap

보도날짜 19. 08. 02.

출 처 DIN

사 이 트 https://www.din.de/en/din-and-our-partners/press/press-releases/setting-the-course-for-the-ai-roadmap-339904

◆ 8월 1일, BMWi(German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Energy,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와 DIN(Germ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독일표준화협회)은 산업, 정치, 과학 및 시민 사회 대표와 함께 'AI 표준화 로드맵을 위한 Steering Group' 설립

- Steering Group 설립으로 독일은 AI 허브로 확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DFKI(German Research Cen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독일 인공지능 연구소)의 최고 경영자인 Wolfgang Wahlster 교수는 Steering Group의 책임자로 선정됨

◆ 'AI 표준화 로드맵을 위한 Steering Group'의 연구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표준 및 규격은 연구 결과를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송 및 신뢰 구축과 AI 응용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련 분야의 이용자를 위한 명확한 행동 양식을 제공할 예정

◆ AI의 품질과 실행 가능성 보장

- 표준과 규격은 AI 전략에 있어서 필수 구성 요소이며, AI 애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둔 현대적·안전성·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또한, 표준은 AI의 실행 가능한 규제 프레임 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DIN Executive Board의 Christoph Winterhalter은 DIN의 경우 AI 로드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AI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므로 표준과 규격이 인공 지능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명확한 개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AI 로드맵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AI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추가 목표는 이미 진행 중인 국제 작업을 강화하고 독일 및 유럽 AI 표준을 국제 수준으로 높일 예정임

- 킥오프 회의는 2019년 10월 16일 베를린에서 개최 될 예정임